

# 사서직의 자아성찰 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for the Self-Reflection of Librarianship

임 성 관(Seong-Gwan Lim)\*

### 〈목 차〉

I. 서론	3. 선행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I. 사서직의 자아성찰 방안 제시
2. 연구 문제 및 방법	1. 공통적 차원
II. 이론적 배경	2. 개인적 차원
1. 사서와 자아성찰	3. 집단적 차원
2. 자아성찰의 과정	I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사서의 전문성 발달과 개인적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성찰이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사서의 자아성찰에 관한 연구들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아성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자아성찰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자아성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사서직들이 자아성찰을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회 내에서 자아성찰 함양을 위해 행해져야 할 영역들에 대해 제안하였다.

키워드: 사서, 사서직의 전문성, 자아성찰, 자아발견, 자아실현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awareness of problems concerning self-reflec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the real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lthough it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ndividual maturity of librarians. Recent research on self-reflection, which is only at the beginning stages of study, has brought up the need for additional and more in-depth analyses of factors that influence self-reflection. This study on the progress of overall research will show the current status and definition of librarians' self-reflection. The study will also illuminate and make suggestions to help direct future research along the lines of librarians' self-reflection and corresponding educational requirements.

Keywords: Librarian, Specialty of Librarianship, Self-reflection, Self-discovery, Self-realization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초빙교수(harin75@hanmail.net)  
•논문접수: 2016년 11월 19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8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21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511-535,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53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은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확립하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유를 누리며, 직무의 조건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론 직업적 자유와 권한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공공성과 이타성이 보장될 때 확고해진다. 따라서 전문직이 되려면 지식기반의 전문성과 교육과정의 체계성 그리고 멤버십에 대한 자기 규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허진영 2009, 4). 사서직은 전문직으로서 서비스가 목적이며, 이용자와 공적인 기록인 지식을 중재하는 고유의 영역을 갖고 있다. 사서의 역할은 그 직업이 성립된 이래로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역할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백진화 2005,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전국도서관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국립도서관은 5곳, 공공도서관은 978곳, 작은도서관은 5,595곳, 대학도서관은 426곳, 학교도서관은 11,291곳(초등 5,908곳, 중등 3,074곳, 고등 2,309곳), 기타도서관은 42곳이다. 이 결과는 이미 전국 각지 1만 8천 곳이 넘는 도서관에서 사서직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적정 서비스를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다 보면 신선함과 독창성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수 있다. 그래서 합리화하며 안주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스스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만든다.

LG경제연구원의 박지원 책임연구원은 ‘정년까지 똥던하는 인재들의 특징’이라는 보고서(2014, 41-46)를 통해 중년 직장인들이 정년까지 똥던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해 제시했는데, 그 중 다섯 번째 특징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꼽았다. 즉 똥던하는 인재들은 자아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의 한계나 약점을 알고 이를 수용했으며, 자신이 지니지 못한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고 또한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직업인들은 자아성찰을 통해 자신은 물론 직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한계를 알고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점은 최대한 살려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이

미 다른 전문 분야들은 자기성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들을 활발히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계 및 사서직을 위해서도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자기성찰과 관련된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기성찰을 위한 요소들을 확인하여 사서들의 자기성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현장에서의 실천과 문헌정보학계에서의 추가 연구를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문직인 사서직에게도 자아성찰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사서 개인은 물론 도서관, 나아가 문헌정보학계가 사서들의 자아성찰을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도서관과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물론이고 상담 및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자기성찰과 관련된 연구들을 이론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둘째, 고찰 및 모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들이 자기성찰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사서와 자아성찰

#### 가. 사서

사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문헌정보학을 이수하고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괄하여 일컫는 전문직의 명칭(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0, 179)”으로 정의된다.

#### 나. 자아성찰

인간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한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의 목적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실천적으로 알아가는 성찰 작업이 무엇보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필요하다(정은주, 권효숙 2010, 78).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에 있다는 점에서 ‘자아’와 ‘성찰’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여타의 생명체와 달리 인간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의미가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선택하고 기획한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는 과업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으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성찰의 과정이 요청된다(한자경 1997, 115-116).

자아성찰은 현상 및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주의집중, 깊은 숙고를 필요로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및 변화를 향한 방향성을 가진다. 그 중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적극적 탐색, 점검, 분석을 자아성찰에서 중점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분석이 있기 이전에 분석이 되기 위한 경험이나 개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인식된 내용에 대해 탐색과 분석을 통해 이해 및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황주연, 정남운 2010, 248).

다음의 <표 1>은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분야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아’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자아의 개념

<p>철학 (김상욱 2003, 23)</p>	<p>철학에서 자아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불변하는 실체로 파악하는 ‘실체론적 인간’ 해석에서 시작한다. 이는 플라톤(Plato)으로부터 근대의 데카르트(Descartes)로 계승되는 인식론의 해석이다.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구성되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ego cogito, ergo sum)’라는 언술에서처럼 그 중심이 주체에 놓여 있다. 이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인 사유를 통해 실재하는 대상 세계인 객체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실체의 연원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인식된다는 경험론이나 인간의 관념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합리론 모두 대상 세계로서의 객체가 주체의 인식을 통해서야 비로소 존재하게 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인식에 따른 대상의 전유는 필연적으로 대상 세계를 부차적으로 간주하는 대상화가 불가피하다.</p>
<p>사회학 (정수민 2013, 15)</p>	<p>기능주의 사회학자인 뒤르켐(Durkheim)은 인간의 성장을 비사회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사회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쿨리(Cooley)나 미드(Mead)는 개인적 자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사회적상징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p>
<p>심리학 (송인섭 1998, 21-28)</p>	<p>제임스(James)는 철학과 심리학을 관련지어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를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 순수 자아의 네 차원으로 구별하였다. 경험적 차원에서 하나의 자아는 개인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Freud)는 인간의 사고나 행위는 심적 체계를 이루는 id(원초아), ego(자아), superego(초자아)의 작용에 의해 역동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는 인간의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밝히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p>
<p>종합 요약</p>	<p>철학사회학심리학에서 자아는 독자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 및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을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고정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p>

이어서 <표 2>는 학자들이 정의 내린 ‘성찰’의 개념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성찰의 개념

Boud & Walker (1985, 19)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이해와 감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활동
Dewey (1933)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의심스럽고 갈등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경험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며 과학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는 감정적인 반응들에 대해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
Go (2010)	성찰은 실천하고 있는 행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
종합 요약	성찰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이자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사서직 자아성찰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와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연결하는 중간 안내자로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질의응답을 기반으로 정보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사서가 포함된 대분류의 범주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서는 전문직적 성격을 가진다(통계청 2007).

하지만 사서들은 스스로 전문직의 바탕이 되는 지식의 독점성 혹은 배타성 수준이 약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전문직으로서 타 직종에 비해 그 인식 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이제환 2003, 6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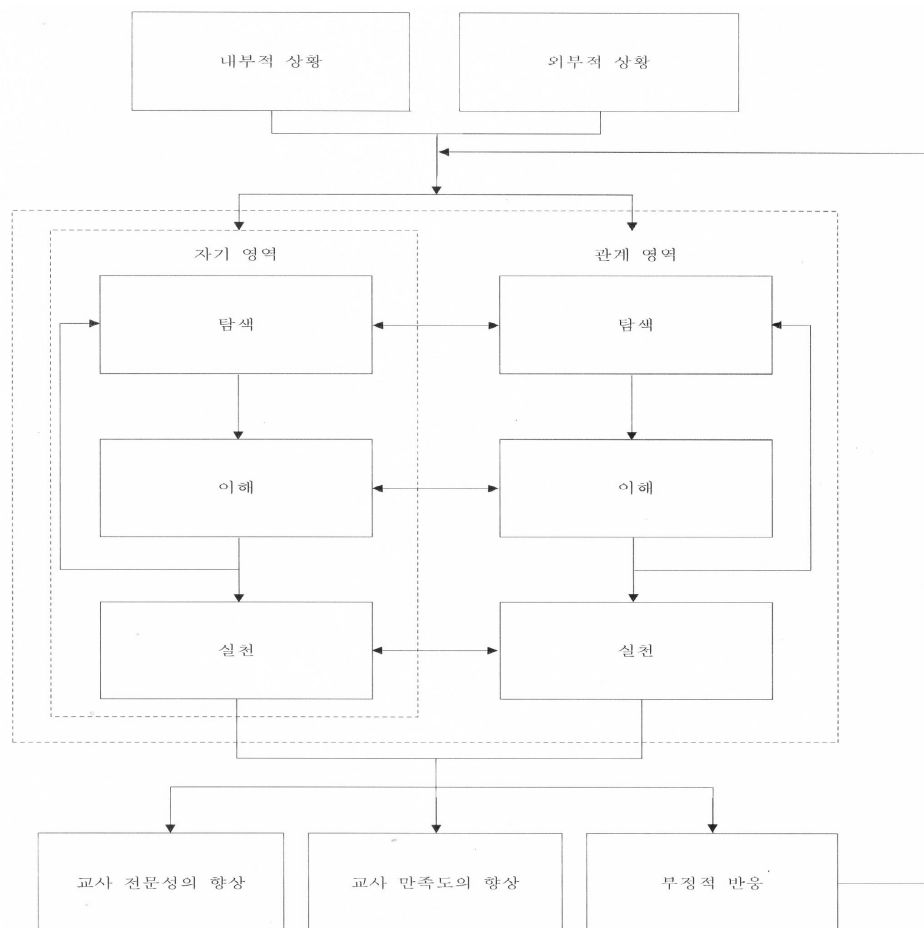
따라서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직업적 차원에서의 자아성찰을 통해 직업의식과 윤리에 충실하면서 사서직의 공공성과 이타성을 구현해 나가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서직 자아성찰은 각종 도서관, 자료실 및 정보기관에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이용에 종사하는 사서가, 변화하는 사회와 이용자의 요구, 더불어 사서 자신의 발전을 위해 직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체적 탐색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자아성찰의 과정

성찰(reflection)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새로운 이해와 감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활동을 말한다(Boud & Walker 1985, 19). Dewey(1933)는 성찰을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의심스럽고 갈등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경험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며 과학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는 감정적인 반응들에 대해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찰은 ‘반성(introspection)’이나 ‘반추(remination)’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성은 실천된 행위를 되돌아본다는 것이지만 성찰은 실천하고 있는 행위와 동시에 발생하는 현재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다(Go 2010). 반추는 개인이 인식한 문제를 수정 또는 해결하려는 생각 없이 고통의 증상과 의미에 대해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Nolen-Hoeksema 1991)이지만, 성찰은 행위 도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실천적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성찰은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에 주목하는 현재성과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실천성을 지니고 있다(이재용, 이종연 2015, 220).



〈그림 1〉 자기성찰의 경험 과정(이재용, 이종연 2015, 233)

앞의 <그림 1>은 이재용과 이종연(2015, 232-233)이 정리하여 제시한 자기성찰의 경험 과정이다. 이 그림에서는 자기성찰의 체험 과정을 유발, 탐색, 이해, 실천, 확산의 5단계로 지정하였다. 유발 단계는 삶 속에서 자기성찰을 일어나게 하는 상황으로 내부적 상황과 외부적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탐색 단계는 삶의 장면에서 일어난 현상을 자기 영역과 관계 영역에 걸쳐 폭넓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해 단계는 사려 깊은 태도로 경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통찰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실천 단계는 자기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확산 단계는 삶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만족도 향상, 부정적 정서의 반복된 경험 등이 실제로 드러나는 과정이다. 탐색, 이해, 실천의 단계는 자기 영역과 관계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관계 영역은 자기 영역을 포함한다. 탐색 단계와 이해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실천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탐색과 이해를 반복하기도 한다. 확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은 탐색 단계로 돌아가 다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긍정적 반응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 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계에서 사서직을 위한 자아성찰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다만 전문성 인식이나 자아상,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어 그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더불어 교육학 및 심리학 분야에서 교사나 상담자를 위한 자아성찰 연구가 활발히 실시가 되었으므로, 그 분야에서 이루어진 내용들도 요약 및 정리하여 사서직의 자아성찰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먼저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이제환(2003)은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직의 전문성’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사서직이 전문직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뒤, 우리 사회구성원의 시각과 사서 자신들의 육성을 통해 사서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점검하였다. 나아가 우리 사서직의 현 단계를 전문직 이론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비추어 보면서, 사서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의 사서직이 전문직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기호(2016)는 ‘의미 변별법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상 분석’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만 사서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나아가 공공도서관 사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사서직에 대한 평가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구축 및 프

로그로 운영, 선배 사서들의 리더십 발휘, 도서관과 사서직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교수자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변우열, 이병기, 송기호(2013)는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과 자아상 분석’ 연구를 통해 의미 변별법을 이용한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사서교사의 자아상을 측정하여 개인별 특성과 자아상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서교사는 스스로를 ‘친절하고 계획적이며 섬세하고 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갖춘 사람’으로 인식하였지만, 반면 ‘불공평하고 초라하며 영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하고 비활동적’이라는 자아상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어서 교육학 분야에서 이성아(2015)는 현재의 대학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와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갖는 것이 각 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인지, 체계화되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학생 성찰의 경우 교수자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찰저널 등과 같은 형태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성찰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수자의 자기성찰은 대학 내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수업 컨설팅 등을 통해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생이 각각 교육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에서의 자기성찰 수업평가 도구 개발 및 효과 연구’를 통해 대학 내 교수자인 교수와 학생 모두가 수업의 전 과정에 걸쳐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평가도구(교수자용 중간 수업평가도구 17문항, 교수자용 최종 수업평가도구 12문항, 학생용 중간 수업평가도구 13문항, 학생용 최종 수업평가도구 12문항)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더불어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물론 자기보고식 평가도구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자신의 현 상황이 아닌 지향점에 답안 표시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자기성찰이 주관적 측면에서의 작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관련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노원경(2007)은 ‘교육실습생의 자아성찰에 관한 연구 : 교육실습생의 성찰저널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교육실습생의 인식과 교육실습운영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실습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K대학교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48명 가운데 26명의 성찰저널을 분석하여 교육실습의 교과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영역에서 교육실습생의 자아성찰은 어땠는지, 더불어 교육실습의 실제적 목적에 비추어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과정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육실습생들이 교육실습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교육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학 분야에서 손은정과 유성경, 심혜원(2003)은 상담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술과 이론 위주의 기존 교육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기성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상담자의 자기 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이라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자기성찰 과정은 상담자의 전문성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고, 성찰적 수퍼비전 모델을 통해 상담자의 성찰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정과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러 영역에서 상담자의 자기성찰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자기성찰 과정을 상담자 교육 장면에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안채윤과 오미경(2013)은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의 정서와 능력에 대해 이해하고 조절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모든 지능의 작용에서 기본이 되고 다른 지능들을 활성화하는 동인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능이라고 전제하였다. 이어서 성인 자기성찰지능의 구성요인을 밝히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의 성인 80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척도는 성인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고 반성하며, 나아가 자기를 설계해 나가며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성찰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도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미정(2013)은 글쓰기가 자아성찰을 통한 자아실현의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학생의 자아성찰을 위한 변형 시 쓰기의 치료적 효능’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대학의 교양문학 강의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글쓰기 이전과 이후에 일어나는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의 변화를 다루면서, 결국 글쓰기가 자아성찰을 가속화시켰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Ⅲ. 사서직의 자아성찰 방안 제시

성찰의 과정이 전문성 발달에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실천의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과연 교육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몇몇 선행연구들은 성찰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사고 과정이며, 훈련에 의해 학습이 가능함을 시사해준다. 실제로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성찰의 과정을 훈련하였던 Raines(1991)

의 연구에서 훈련 결과 예비교사의 성찰 내용이 심화되고 증대되었다. 또한 Korthagen(1999)과 Moallem(1997)은 성찰 과정이 나선형 모형으로 확장, 심화되면서 발달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Dewey(1993)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성찰의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찰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습관을 발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찰은 지식을 획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과 실천과의 역동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되는 사고의 과정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 혹은 새로운 경험의 요소가 투입될 때마다 심화되고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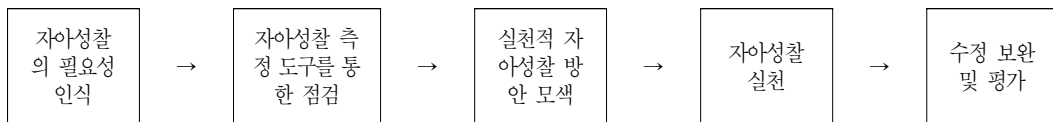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tioner)은 Schon(1987)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전문가가 자신의 실무행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검토하고 숙고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불확정한 문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이론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애매모호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분석하고 생각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은 전문적인 지식과 결론을 얻게 되며, 그러한 변화들은 이후 상담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애매모호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분석하고, 생각해 보는 과정이 바로 자기성찰 과정이다. Schon을 위시한 성찰적 실천 이론가들은 실무경험으로부터 실제적 지식을 이끌어내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자신의 활동 과정과 결과에 대해 숙고하는 지속적인 자기성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자기성찰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는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와 비판적 탐구(critical inquiry)를 필요로 하고, 성찰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료수련생 혹은 동료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에 참여하여 함께 경험을 나누고 성찰하는 방안도 권장되고 있다(배연옥 2007, 6-7).

따라서 자아성찰 방안은 공통적 차원,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각 항목에 포함시키고자 한 영역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이어서 <그림 2>는 <그림 1>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아성찰의 과정을 재정립 한 것으로, 자아성찰 역시 필요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에서부터 출발이 되며, 내 상태에 대한 점검, 적정 방안에 대한 모색, 그리고 실천,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반추하며 수정 및 보완할 점을 찾아 동료나 선배,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나열되어 있다. 만약 이 과정이 성실히 수행된다면 사서직으로서의 역량은 계속 높아질 것이며, 이용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직종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표 3〉 사서직의 자아성찰 차원 및 영역

차원	포함하고 있는 영역
공통적 차원	사서가 되기 위해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거나(사서교육원 포함),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이 자기성찰 점검을 위해 혹은 자기성찰 활동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
개인적 차원	글쓰기와 같이 자아성찰을 위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한다.
집단적 차원	피어 비전(Peer Vision)이나 슈퍼 비전(Super Vision)과 같이 동료 및 사서직의 선배 혹은 교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문과 조언을 통해 인지적 배움과 통찰, 더불어 위로 및 격려 과정을 통한 심리적 해소(카타르시스), 나아가 실천적 자아성찰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행동적 동기 충족의 과정이 포함한다.



〈그림 2〉 자아성찰의 과정

### 1. 공통적 차원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성아(2015)와 안체윤 및 오미경(2013)은 자아성찰 정도를 점검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업평가도구와 자기성찰지능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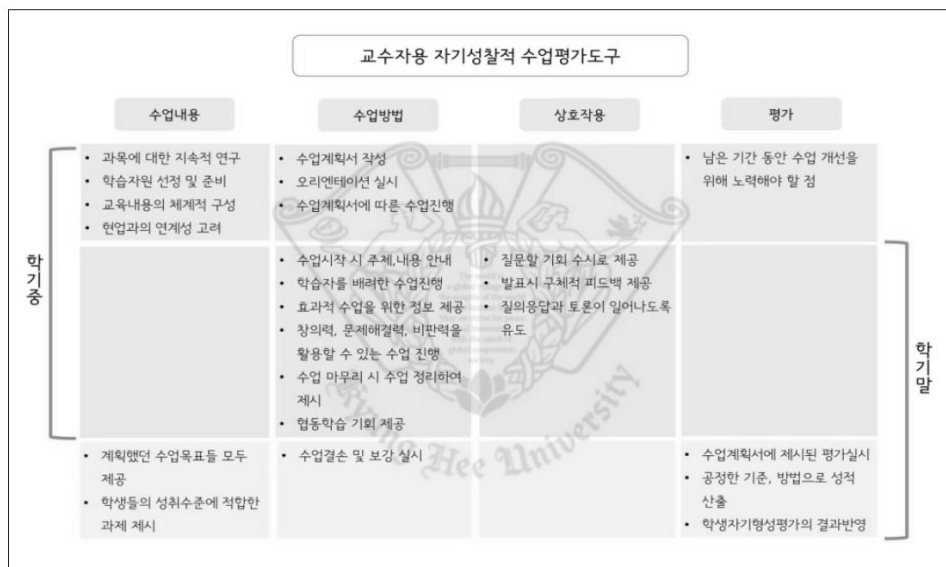
이 가운데 안체윤과 오미경(2013)은 기존 선행 논문 및 척도를 통해 최종 4요인 36개의 문항을 확정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표 4>는 자기성찰지능 척도의 하위 요인을 정리한 것으로, 본 척도는 다중지능의 단일한 요인으로서 자기성찰지능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검사 도구를 도서관 사서들에게 실시한다면 자신의 자기성찰지능<sup>1)</sup>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요인 36개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단계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인별 문항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1) 자기성찰지능은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서 주장하는 8가지 지능 중 하나로 자기이해지능이라고도 한다.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정서와 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자기이해 능력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충동을 통제하는 자기조절 능력,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화하는 자기설계 능력이 합이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한다(윤인에 2012,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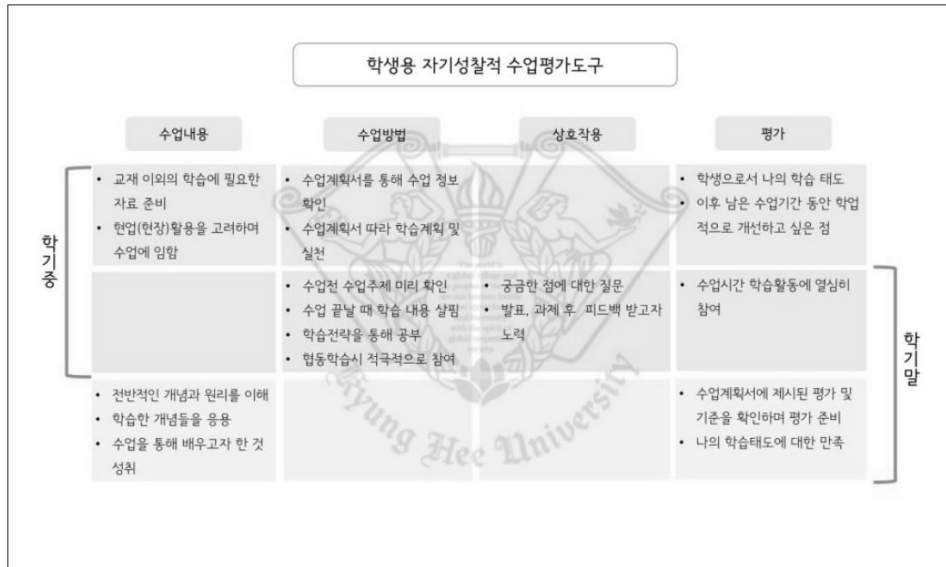
<표 4> 자기성찰지능 하위 요인

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자기이해	10	54, 55, 19, 11, 39, 21, 28, 37, 20, 47
자기설계	8	44, 35, 26, 45, 27, 53, 18, 52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12	14, 41, 33, 49, 57, 23, 34, 7, 59, 42, 6
자기반성	6	4, 3, 13, 62, 22, 48
전체	36	

이어서 이성아(2015)가 개발한 ‘교수자용 자기성찰적 수업평가도구’와 ‘학생용 자기성찰적 수업평가도구’는 다음의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은데, 이 도구는 기존의 수업평가도구와 유사한 형태로 수업평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생들이 좀 더 손쉽게 활용하여 전문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도구를 응용해 도서관관장이나 과장, 팀장과 같이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서들과 그 아래 직급의 사서들이 서로의 업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더불어 만약 도서관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온다면 그들을 관리 및 지도하는 교수자의 입장인 사서와 현장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응용해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림 3> 교수자용 자기성찰적 수업평가도구(이성아 2015, 100)



<그림 4> 학생용 자기성찰적 수업평가도구(이성아 2015, 101)

다음의 <표 5>는 <그림 3>과 <그림 4>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도서관 직무용 자기성찰적 평가도구’이다. 먼저 항목에는 ‘직무 내용’, ‘직무 방법’, ‘상호작용’을,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될 내용들을 각각 나열했다. 이어서 10점 만점으로 자가 평가를 하도록 했고, 개선점을 도출해 직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표 5> 도서관 직무용 자기성찰적 평가도구

항목	내용	평가 (10점 만점)	개선점
직무 내용	· 직무에 필요한 사항 준비 정도 · 현장 활용을 고려하며 직무에 임함		
	· 직무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 · 이론적 배경과 현장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내용들을 응용		
	· 직무를 통한 성취		
직무 방법	· 직무 내용을 확인		
	· 직무 계획 수립 및 실천 정도 · 직무 전반에 관한 유기성		
상호작용	· 상사 및 후배와의 협력을 위한 소통		
	· 직무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거나 해주기 위한 노력		

## 2. 개인적 차원

사서직의 자아성찰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개인적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다. 자기성찰에 있어 개인적 요인으로는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와 비판적 탐구(critical inquiry)를 필요로 하고, 성찰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술한 바 있다. 따라서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탐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찰능력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성찰적 글쓰기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쓰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방법이다. 따라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제시해 보고자 한다.

### 가. 변형 시 쓰기

전미정(2013, 141-142)은 문학에서도 시가 소설보다 짧아 읽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적으면서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속도가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독자의 마음에 감정을 일으키는 파동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최단 시간에 긍정적 삶의 에너지를 생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성찰을 위해 ‘변형 시 쓰기’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읽기 위주의 시 경험과 쓰기를 동반한 시 경험이 자아성찰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기 위해 세 단계로 진행을 하였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작품을 읽고 나서 발생한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을 쓰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작품을 읽고 나서 연상되는 자신의 경험을 ‘변형 시’로 옮겨 쓰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변형 시를 쓰고 나서 변화된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변형 시 쓰기는 독서치료에서 보통 ‘모방 시 쓰기’라고 부르는 작업이다. 따라서 이 작업을 통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이 가는 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감이 가는 시를 골랐다면 카타르시스 및 통찰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다음의 시는 본 연구자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적이 있는 작품으로,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변형 시 쓰기의 예시 작품으로 제시해 본다.

## 넥타이

임영조

이른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목을 맨 울가미가  
온종일 나를 끌고 다닌다

사무실로 거리로  
찾집으로 술집으로  
또 무슨 식장으로 끌고 다닌다  
서투른 근엄을 위장해 주고  
더러는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갖가지 자유를 결박하는 끈

도대체 누굴까?  
이 견고한 줄로  
내 목을 거뜰히 묶아 쥘 者는...

답답해라  
어머니의 텃줄을 끊고  
세상에 나온 이후  
나는 아무런 줄도 잡지 못하고  
불안한 도시 안개 속을 헤매는 羊

제발 정신 좀 차려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하면서  
뒤틀린 넥타이를 고쳐 매지만  
나는 다시 고분고분 길들여진다  
낮선 시간 속으로  
바쁘게 끌려가는 서러운 노예처럼

『갈대는 배후가 없다 / 임영조 지음 / 세계사』

나. 자아 성찰적 글쓰기

다음의 <표 6>은 박호관(2014)이 제시한 자아 성찰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실습 과제이다.

<표 6> 자아 성찰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실습 과제

교육 내용	실습 과제
1) 창의적 내용 생성하기 - 경험 회상하기 : 질문지 작성 - 자아 탐색하기 : 연표 작성하기	<과제> 질문지 작성하기 연표 작성하기
2) 내러티브 구상 - 테마별 정리하기 : 성장 곡선 그리기 - 글의 대상(사진)과 주제 설정 - 경험(일화)의 재구성	<과제> 성장 곡선 그리기
3) 내용 구성하기 - 마인드맵 그리기 - 개요도 작성 : 처음, 중간, 끝	<과제> 마인드맵 그리기
4) 성찰적 내용 전개 - 서사와 묘사, 설명과 대화, 평가(의미와 가치 부여)	<과제> 개요도 작성
5) 초고 작성 - 대상(사진) 설명(해설) - 일화 중심의 대화 - 성찰과 평가(해석, 의미부여)	<과제> 초고 쓰기
6) 담당 교수 첨삭 및 피드백	
7) 퇴고 및 완성 글 쓰기 - 글과 문단 : 통일성, 일관성, 연결성 - 문장 : 우리말 배움터 - 어휘 : 표준국어대사전	<과제> 완성글 쓰기

<표 7>의 내용은 대학생들을 위해 실시된 공통교양 글쓰기 과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6단계’의 ‘담당 교수 첨삭 및 피드백’ 항목만 ‘동료 및 전문가의 피드백’으로 수정이 된다면 현장 사서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 기타 글쓰기

이봉희(2008)는 ‘글쓰기치료 : 소설 고쳐 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사례’ 연구를 통해 문학치료를 접목한 문학수업 시간에 가상의 이야기 쓰기를 응용한 ‘소설 고쳐 쓰기’를 통하여 참여자가 자아성찰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소설 고쳐 쓰기의 과정은 첫째, 인지단계 : 먼저 참여자는 문학작품에 반응하고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둘째, 탐구단계 : 문학치료사의 도움(대화, 질문)을 받아서 참여자는 문학작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게 된다. 셋째, 병치단계 : 대조와 비교를 통한 상호



작용의 과정으로 자신이 문제와 생각에 새로운 시각, 관점, 지혜를 얻는다. 넷째 : 적용단계 : 참여자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하며, 이 새로운 깨달음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

한혜정(2005)은 ‘자아성찰과 교수방법으로서의 자서전적 방법(Autobiographical Method)’ 연구를 통해 자서전적 방법의 아이디어를 의미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설 고쳐 쓰기, 자서전 쓰기는 물론이고, 일기 및 편지 쓰기, 수필 쓰기 등 개인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문종의 글쓰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

### 3. 집단적 차원

집단적 차원에는 피어 비전(peer vision)이나 슈퍼 비전(super vision)과 같이 동료 및 사서직의 선배 혹은 교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문과 조언을 통해 인지적 배움과 통찰, 더불어 위로 및 격려 과정을 통한 심리적 해소(카타르시스), 나아가 실천적 자아성찰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행동적 동기 충족의 과정이 포함한다. 집단적 차원은 제목 그대로 혼자가 아닌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아성찰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집단이 구성되어 꾸준한 슈퍼 비전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자아성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계에는 아직 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개념을 정리해 제시하면서 접목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 가. 피어 비전(peer vision)

동료(peer)는 같은 직장이나 부문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같은 사회 집단에 속해 있고 동등하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정서적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슈퍼 비전(super vision)은 상하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슈퍼바이저로서는 부담감을 완전히 떨치기 어렵다. 하지만 동료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민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고, 지지와 격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서들은 같은 도서관이나 혹은 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에게 피어 비전(peer vision)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피어 비전(peer vision)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 SNS를 통한 방법 등 다양하다.

### 나. 수퍼 비전(super vision)

상담 및 심리치료자의 자질 향상과 직업적 발달을 조정하고, 내담자에게 믿을 수 있고 효과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수퍼 비전은, 특히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과정이다(임성관 2006, 139). 하지만 이 용어는 교육활동의 전반에 걸쳐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적, 기술적인 봉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식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일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있다면 어느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문헌정보학 내에서는 교수와 학생, 관리자와 담당 사서, 선배와 후배 등의 관계에서 수퍼 비전이 가능하다. 수퍼 비전 활동에는 교육(훈련), 자문, 상담, 평가가 포함되는데, 이를 문헌정보학의 측면과 연결 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훈련)

교육은 문헌정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혹은 현장 사서가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필요한 기술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교육(훈련)은 수퍼바이저(supervisee)의 수준과 요청 사항에 따라 달리 행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 관련 분야의 최신 경향 등을 알게 되어 도서관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도 한다.

#### 2) 자문

자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가에게 단기간에 걸쳐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청하는 것이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맡고 있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용자와 만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문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궁금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거나 자격이 높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3) 상담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이다(임성관 2006, 145).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일을 전문적 해내야 하고,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크고 작은 민원과 요구들을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심리적 고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도서관 업무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 4) 평가

수퍼바이저(supervisor)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수퍼바이저인 사서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잘한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고,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도서관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업무회의나 간담회 등의 자리를 통해 관리자 등급의 사서들이 아래 직급의 사서들에게 평가를 해줄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외부 전문가들(교수 등)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자아란 개인이 그 자신에 관해 사실이라 믿는 믿음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제로서, 이러한 각기의 믿음은 가치와 부합되는 것이다(Purkey 1992, 26). 프로이트 외에 여러 심리학자들이 자아에 대해 규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건강한 성격’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여러 이론가들이 말하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대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에 단단히 정착하고 있다. 인간이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면역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초기 경험에 의해 불편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둘째, 미래에의 전망을 강조한다. 현재에서 계속 되는 실존을 인식하며 미래의 목표와 사명을 향한다(Schultz 2012, 229-230).

본 연구는 사서의 전문성 발달과 개인적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성찰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자기성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서직의 자아성찰 차원을 공통적 차원, 개인적 차원, 집단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이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공통적 차원에서는 ‘자기성찰적 평가 도구’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 직무용 자기성찰적 평가도구’를 개발해 활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찰적 글쓰기’를 위해 변형 시 쓰기와 자아 성찰적 글쓰기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집단적 차원에서는 ‘피어 비전(peer vision)’이나 ‘수퍼 비전(super vision)’을 통해 동료 및 사서직의 선배 혹은 교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문과 조언을 통해 인지적 배움과 통찰, 더불어 위로 및 격려 과정을 통한 심리적 해소(카타르시스), 나아가 실천적 자아성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직 이 방안들을 현장의 전문 사서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 사서들은 관중별·직급별·근무형태별·성별에 따라 어떤 측면에서의 자아성찰을 필요로 하는지 설문조사하여 연구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사서들을 위한 자기 성찰적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자아성찰 방안들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 및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는 사서들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이 과정을 통해 행복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서직의 자아성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이 된다면 사서들은 도서관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장기적인 인생 설계를 해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인용. 2016. 11. 15].
- 김상욱. 2003. 『문학 교육의 길 찾기』. 서울: 나라말.
- 노원경. 2007. 교육실습생의 자아성찰에 관한 연구 : 교육실습생의 성찰저널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발전연구』, 23(1): 55-83.
- 박지원. 2014. 정년까지 통령하는 인재들의 특징. 『LG Business Insight』, 2014(12): 41-46.
- 박호관. 2014. 자아 성찰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사례 분석 : 대구대 공통교양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63: 69-101.
- 배연옥. 2007. 『상담자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 자기성찰 및 수퍼비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전공.
- 변우열, 이병기, 송기호. 2013.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과 자아상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31-47.
- 손은정, 유성경, 심혜원. 2003. 상담자의 자기 성찰(reflection)과 전문성 발달. 『상담학연구』, 4(3): 367-380.
- 송기호. 2016. 의미 변별법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아상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53-69.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안채윤, 오미경. 2013. 성인용 자기성찰지능 척도 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20(1): 51-78.
- 윤인애. 2012. 『자기성찰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상담교육전공.
- 이봉희. 2008. 글쓰기치료 : 소설 고쳐 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사례. 『새국어교육』, 80: 339-360.
- 이성아. 2015. 『대학 교육에서의 자기성찰 수업평가도구 개발 및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 이재용, 이종연. 2015. 초등교사의 자기성찰에 대한 체험분석. 『교원교육』, 31(2): 219-241.
- 이제환. 2003. 전문직 이론을 통해 본 사서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57-87.
- 임성관. 독서치료 수퍼비전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연구』, 6: 139-152.
- 임형조. 『갈대는 배후가 없다』. 서울: 세계사.
- 전미정. 2013. 대학생의 자아성찰을 위한 '변형 시' 쓰기의 치료적 효능. 『문학치료연구』, 26: 135-159.
- 정수민. 2013. 『성찰적 자아 형성을 위한 현대시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 정은주, 권효숙. 2010. 'HSP 자아발견 프로그램' 을 통한 성찰체험에 관한 연구. 『뇌교육연구』, 3(5): 77-105.
- 통계청. 2007.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online]. [cited 2016. 12. 15].
-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자경. 1997. 『자아의 이론』: 서광사.
- 한혜정. 2005. 자아성찰과 교수방법으로서의 '자서전적 방법(Autobiographical Method)'. 『교육과정연구』, 23(2): 117-132.
- 허진영. 2009. 『국립대학 사서적의 전문성 향상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황주연, 정남운. 2010. 상담자 자기성찰(Self-Reflection)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41-263.
- Boud, D. & Walker, D. 1985. *Barriers to reflection on expertise*. in D. Boud, R. Keogh and D. Walker, *Reflection : Turning Experience into Learning*, London: Kogan Page.
- Dewey, J. 1933. *How we think*. Boston: Health and Company.
- Go, J. H. 2010. The Reinterpretation of teacher's reflective practice : In the view of

- Vipassana's Sati(mindfulnes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7: 231-247.
- Joireman, J. A., Parrott, L. & Hammersla, J. 2002. Empathy and the self-absorption paradox: Support for the distinction between self-rumination and self-reflection. *Self and Identity*, 1: 53-65.
- Korthagen, F. A. J. 1999. Linking reflection and technical competence: The logbook as an instrument in teacher education.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2(2): 191-207.
- Moallem, M. 1997. The content and nature of reflective teaching: A case of an expert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 *Clearing House*, 70(3): 143-150.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 Neufeldt, S. A., Karno, M. P. & Nelson, M. L. 1996.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s' conceptualization of supervisee reflectivit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3(1): 3-9.
- Purkey, W. W. 1985. 『후기자본주의』, 안범희 옮김, 1992. 서울: 문음사.
- Raines, P. 1991. *The nature of reflection of a cohort of novice secondary language arts teac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 Schon, D. A. 1987.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 Toward anew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profession*. New York: Basic Books.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Che-Yun & Oh, Mi-Kyung. 2013. "The Development of an Intrapersonal Intelligence Assessment Scale for Adult".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1): 51-78.
- Bae, Yeon-Wook. 2007. *Counselor's Self-reflection,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 Department of Department of Counseling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Byun, Woo-Ywoul & Lee, Byeong-Ki & Song, Gi-Ho. 2013.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ool and Analysis of Self Images for Teacher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24(2): 31-47.
- Han, Hye-Jung. 2005. "The Autobiographical method as self-reflection and teaching method".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3(2): 117-132.
- Han, Ja-Kyung. 1997. *Theory of self*. Seoul: Seokwangsa.
- Heo, Jin-Young. 2009. *The study of improvable ways for the specialty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ian-ship*. M.A.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Hwang, Ju-Youn & Chung, Nam-Woon. 2010. "A Study on the Self-Reflection of the Counselo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2): 241-263.
- Jeong, Eun-Ju & Kown, Hyo-Sook. 2010. "A Study on the Reflection Experience of 'HSP Self-Discovery Program'". *Journal of Brain Education*, 3(5): 77-105.
- Jeong, Su-Min. 2013. *A Study on Formation of Reflective Self in Poetry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Jun, Mi-Jung. 2013. "A Study on therapy effectiveness in changing poem for self-introspection". *The Journal of Literarytherapy*, 26: 135-159.
- Korean Library Association Compilation Committe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lossary. 2010.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lossary*.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Bong-Hee. 2008. "Rewriting a short story as a therapeutic process : a case study".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80: 339-360.
- Lee, Jae-Yong & Lee, Jong-Yeun. 2015. "An Experiential Analysis of Self-Reflection in Elementary School Teacher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2): 219-241.
- Lee, Jae-Whoan. 2003. "Is the Librarianship in Korea a Profess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57-87.
- Lee, Seong-Ah. 2015.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 of Self-Reflection Course Evaluation Tools for University Students and Faculty*.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Technolog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 Lim, Hyeong-Jo. *Reed haven't behind*. Seoul: Segyesa.
- Lim, Seong-Gwan. 2006. "A Study for bibliotherapy supervision". *Reading Culture Research Institute Journal*, 6: 139-152.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http://www.libsta.go.kr>> [cited. 2016. 11. 15].

- Kim, Sang-Uk. 2003. *Way finding of Literary Education*. Seoul: Naramalbooks.
- Noh, Won-Kyung. 2007. "A Study for the self-reflection of preservice teachers : Through the self-reflection journal of preservice teachers who experience teaching practice".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3(1): 55-83.
- Park, Ho-Gwan. 2014. "Educational content of Self-reflective writing and Analysis of Teaching and Learning Cases". *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3: 69-101.
- Park, Ji-Won. 2014.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 to long run until retirement age". *LG Business Insight*, 2014(12): 41-46.
- Sohn, Eun-Jung, Yoo, Sung-Kyung & Shim, Hae-Won. 2003. "Counselor's Ref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4(3): 367-380.
- Song, In-Sup. 1998. *Self-concept inquiry of human*. Seoul: Hakjisa.
- Song, Gi-Ho. 2016. "An Analysis of the Public Librarians' Self Images us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53-69.
-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 [cited 2016. 12. 15].
- Yun, In-Ae. 2012. *The Effects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Enhancement Program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 thesis.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부록 1> 자기성찰지능 요인별 문항 내용

번호	요인 1. 자기이해
11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있다.
19	나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불쾌해질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0	나는 내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21	나는 나의 감정 상태를 잘 구분할 수 있다.
28	나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다.
37	나는 어떤 일로 인해 나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 수 있다.
39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인지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수 있다.
46	나는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본다.
54	갑자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를 알아차릴 수 있다.
55	나는 내가 하는 생각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다.
번호	요인 2. 자기설계
18	나는 내 미래의 모습이나 직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안다.
26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27	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35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신념이 있다.
44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있다.
45	나는 미래를 위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52	나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회의가 들 때 내가 이 일(공부)을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53	나는 장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삶의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생각한다.
번호	요인 3.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5	나는 화가 많이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여 참는다.
6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애쓴다.
7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14	나는 내가 흥분이 되어 있을 때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다.
23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침착하게 한다.
33	나는 화가 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빨리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34	나는 상대방이 이야기 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다.
41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스스로 화를 다스릴 수 있다.
42	나는 우울해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49	나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상황에 따라 화를 내야할지 참아야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57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59	나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전체를 위해 맞춰줄 수 있다.
번호	요인 4. 자기반성
3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4	나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곤 한다.
13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나의 모습, 생활, 행동, 말들을 돌이켜 볼 때가 있다.
22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지난 일들을 돌이켜본다.
48	내가 타인에게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이 옳았는지 점검해 본다.
62	일상에 묻혀 바쁘게 생활하다가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 '내가 잘 살고 있나' 하고 되돌아본다.

